

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!



Q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은 무엇인가요?

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으로 황열, 말라리아, 뎅기열, 치쿤구니아열, 웨스트나일열,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이 있습니다. 단, 말라리아는 국내·외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.

Q 어떻게 전파되나요?

바이러스나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, 사람 간 전파되지 않습니다. 드물게 혈액(수혈, 장기이식 등)을 통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단,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감염자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가능합니다.



모기 물림



혈액 전파

Q 어떤 증상이 있나요?

발열, 두통, 관절통, 결막염 등이 주요 증상이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.

Q 감염병에 걸리면 치료가 되나요?

말라리아를 제외하고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합니다. 증상 초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.

Q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발생 국가 여행 후 헌혈해도 되나요?

입국 후 4주간은 헌혈 보류기간이며, 방문 국가에 따라 헌혈금지 기간이 다르므로 헌혈하기 전 해당 혈액원(대한적십자사 1600-3705, 한마음혈액원 02-586-241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한 모기매개 감염병 바로알기!



여행 전 준비하기!



* 질병관리청(kdca.go.kr),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 확인

- 여행 국가의 모기매개감염병 발생현황 확인하고, 필요 시 예방접종 및 예방약 복용하기
- 모기기피제, 모기장, 밝은색 긴 옷 챙기기

황열

유행국가(남미, 아프리카) 방문 시 **예방접종**을 권장하며, 방문하기 최소 10일 전 접종해야 합니다.
(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국가인지 확인)

말라리아

국가별 발생하는 말라리아 종류 및 약제에 대한 내성이 다르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**예방약**을 복용해야 합니다.

여행 중 조심하기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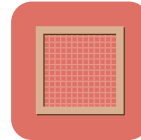
기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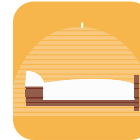
모기향



밝은색
긴팔, 긴바지



방충망



모기장

-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기
- 여행 중 모기 퇴치용품(기피제, 모기향, 방충망 등) 사용하기
- 풀숲이나 산속 등 모기가 많은 곳은 피하기
- 어두운 색 옷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기
- 야외 활동 시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 금지, 야외 활동 후 땀 제거 및 땀이 묻은 옷은 철저히 세탁하기

여행 후 확인하기!



발열



발진



근육통 또는
관절통



결막염



두통

-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(발열, 발진, 두통, 관절통, 근육통, 결막염 등)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진료받기

남녀모두
3개월간
성접촉 피하기



-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후 최소 3개월간 임신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